

新羅 上古期 軍制의 성립과 개편*

金 鍾 洙**

1. 머 리 말
2. 辰韓의 정치체제와 군사
3. 이사금 시기 6部兵制의 성립
4. 마립간 시기 2部兵制로의 개편
5. 맺 음 말

1. 머 리 말

혁거세거서간 대부터 지증마립간 대까지를 일컫는 ‘上古期’는 신라 국가의 성립·발전기라 할 수 있다.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초까지 근 500년에 걸치는 이 시기에 신라는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여러 진한 소국들을 정복하고 중앙집권적인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신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다른 진한 소국보다 우수한 군사력과 이러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결집·운용한 軍制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상고기 신라의 성장

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할 때 군제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상고기 신라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軍政一致 사회였고, 문관과 무관이 하나가 된 文武一致 사회였다. 평시에 정치·행정 업무에 종사하던 관리들은 전시에는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섰다. 따라서 신라 상고기의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할 때에도 군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라 상고기 군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상고기 이외의 신라 시기 군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에 달하여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진행될 정도이지만,¹⁾ 상고기 신라 군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6부병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격을 규명한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²⁾과 고대국가의 군사조직을 살피면서 신라 상고기 군제를 언급한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³⁾이라는 논문 2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신라 상고기 군제에 관한 이 두 논문은 6부병의 성격과 그 해체 시기를 둘러싸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에서는 6부병은 명칭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6부의 부원을 인적자원으로 하여 部 단위로 편제한 군사조직이며, 성립 초기의 6부병은 部 단위의 자율성이 강한 읍락연맹군적 성격의 군사조직이었으나, 왕권이 성장하고 6부에 대한 국왕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국왕의 독점적 지배력이 관철되는 단일한 군사조직으로 변화해 갔는데 이 같은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렴한 조치가 진흥왕 5년(544) 6부병의 해체와 대당의 설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이에 반해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에서는 ‘신라의 六部兵은 部단위로 움직이는 병력이 아니라 신라국왕의 명에 따라 운영되는 신라의 국군이었던’⁵⁾이라고 주장하고 6부병이 더 이상 기존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유지하지 못

1)李文基, 「新羅 軍事組織 研究의 成果와 課題」, 『歷史教育論集』 12, 1989.

梁正錫, 「韓國 古代 軍事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2, 1996.

2)李文基,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27집, 2001.

3)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4)李文基, 위 논문, 2001, pp. 116-117.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군산대학교 대학자체 학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교수

하고 새로운 군사조직으로 재편되는 시기는 법흥왕 11년(524) 신라 전역에 걸쳐 법당군단이 편성되는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6부병의 성격과 해체 시기에 대해 두 논문은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6부병의 성격과 해체시기를 둘러싼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여 신라 상고기 군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6부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전의 군제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시기의 제도는 반드시 그 이전 시기의 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발전한다. 이에 2장에서는 진한의 정치체제와 군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6부병의 해체시기를 둘러싸고 기존의 연구는 모두 中古期인 법흥왕 대와 진흥왕 대를 지목했지만, 본 논문은 6부병은 이사금 시기에만 존재하였던 군사조직이고, 마립간 시기에는 2부병제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즉 사로국 성립과 더불어 등장했던 6부병제는 마립간 시기에 들어와 喙部和 沙喙部로 구성된 2부병제로 전환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냉수리비와 봉평비, 창녕비와 남산신성비 등의 금석문을 통해 얻어진 판단이다. 이에 3장에서는 이사금 시기 6부병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는 마립간 시기 2부병제로의 개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고기 군제에 대한 검토는 관련자료가 얼마 없고, 또 그나마 있는 자료도 신빙성 문제로 논란이 있어 선뜻 착수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신라 상고기 군제는 신라 군제의 원형을 이루는 것으로서 신라 군제, 나아가서 우리나라 군제 전체의 계기적 발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군제 전체의 계기적 발전상을 염두에 두고 『삼국지』 동이전과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재검토하고,⁶⁾ 이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5) 李仁哲, 앞의 논문, 2003, pp. 309-310.

6)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삼국지』 동이전은 믿을 수 있는 기록이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삼국지』 동이전에 의거하여 재조정하여 보아야 한다는 '수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삼국지』 동이전이 대체로 3세기 중

2. 辰韓의 정치체제와 군사

신라는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던 辰韓 小國 가운데 하나인 斯盧國(徐那伐)을 모체로 하여 발전하였다. 사로국은 기원 전후에 성립하여 점차 진한 소국을 정복하고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인 신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신라 발전의 밑바탕에는 여타 진한 소국보다 선진적인 사로국의 정치·경제·군사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군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진한 연맹체의 정치와 군사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한의 정치·군사 체제와 비교한다면 신라 군제의 특징이 한층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한, 진한, 변진으로 이루어진 삼한이 존재하기 전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는 辰國이라는 연맹체 국가가 있었다.⁷⁾ 진국은 기원전 10세기쯤 생산력

업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간주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魏略』에 의하면 王莽 地皇 때(A.D. 20~22)에 진한에서는 漢人 노예 1,500명을 부리고 있으며, 또 3년 동안에 죽은 한인 노예 500명에 대한 대가로 15,000명의 주민과 15,000필의 牟韓布를 낙랑군에 송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지』 변진조에서는 진한에서 大國은 4~5천 家, 小國은 6~7백 家에 이른다고 적혀있다. 1가에 5명씩 있다고 계산하면, 대국의 인구는 20,000~25,000명, 소국의 인구는 3,000~3,500명에 달하는 것이다. A.D. 20~22년에 15,000명의 주민을 낙랑군에 보낸 진한이 3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구 규모가 이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15,000명이면 이 시기 大國 인구의 3/4이고, 小國 5개를 합친 규모이다. 따라서 『삼국지』 동이전의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라는 기록은 3세기 중엽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A.D. 20~22년보다 훨씬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 마한은 '無城郭'이라고 서술하고는 뒤에 다시 마한의 성곽 축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같은 시기의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 즉 『삼국지』 동이전의 일부 기사는 기원전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7) 진국과 삼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연구사 정리도 제출되었다(박대재,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이강래,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 1』, 신서원, 2006). 그런데 진국과 삼한 문제의 핵심은 삼한이 모두 진국이었던 「후한서」의 기록과 진한만이 진국이었던 『삼국지』의 기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

의 발전과 사적 소유의 발생에 따라 계급이 출현한 이후 생겨난 국가이다. 기원전 10세기 무렵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을 지닌 지배층이 여럿 출현하여 소국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소국의 지배층들이 모여 진국이라는 연맹체 국가를 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진국은 기원전 3세기 무렵 마한, 진한, 변진 등 삼한으로 분화된다. 북방 유이민이 대거 유입되고 세형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제 무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등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진국이 삼한으로 三分되었다.⁸⁾

삼한은 연맹체 국가로서 이에 소속된 국가들은 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등급이 매겨져 있다. 삼한 연맹체의 최정점에는 마한 맹주국의 渠帥(主帥)로서 연맹장으로 추대된 진왕이 있었고⁹⁾, 진왕 아래 각 소국 거수들은 그들 국가의 크기에 따라 서열화된 명칭을 부여받았다. 즉 『삼국지』 한전에서

各有渠帥，大者名臣智，其次有險側，次有樊濊，次有殺奚，次有昆借

라고 하는 바와 같이, 각 거수들은 신지, 힘측, 번예, 살해, 읍차 등으로 호칭되었다. 중국 주나라가 封國의 크기에 따라 公·侯·伯·子·男이라는

5등급 작위를 수여하듯이, 삼한도 나라의 크기에 따라 거수들에게 5등급의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칭의 부여는 진왕을 중심으로 하는 삼한 거수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삼한 연맹체에는 국가 간에 禮의 질서가 있었다.¹⁰⁾ 즉 삼한은 '禮也者 小事大 大字小之謂¹¹⁾'라 하듯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禮에 기반을 두어 운영된 사회였다. 마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마한의 맹주국으로 추정되는 '마한'에게 神鹿을 잡아 보내고,¹²⁾ 遷都를 통보하는 등¹³⁾ 事大의 禮를 극진히 하고 있다. 진한과 변진 역시 진왕에게 매년 공물을 보내어 事大의 예를 표하였다.¹⁴⁾ 한편 진왕에게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字小'의 의무가 있었다. 북방에서 유이민들이 대거 마한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마한은 이들을 동쪽 지역에서 살도록 하기도 했다.¹⁵⁾ 훗날 백제나 신라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도 침략하여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켰는데, 마한은 유이민들에게 땅을 떼어 주어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것은 물론 마한이 각 소국에게서 공물을 수취하는 고대국가의 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字小' 의무의 이행으로 표방되었다.

삼한 연맹체가 예적 질서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은 '雖有鬪爭攻戰 而貴相屈服'이라는 『晉書』, 마한전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남과 다투거나 전쟁을 할 때에도 서로 굴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기사는 삼한 연맹체의 예적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한은

10) 삼한 연맹체의 예적 질서에 대해서는 拙稿, 앞의 논문, 2007, p. 186 참조.

11) 『春秋左傳』, 昭公 30年.

12)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10年 9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13)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13年 8月. '遣使馬韓 告遷都'

14)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 居西干 38년 2월.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15) 『三國志』, 韓傳.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拙稿, 「백제 軍制의 성립과 정비」(『歷史教育』 103집, 2007)의 『삼국지』 한전의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라는 글귀에서 弁韓의 '韓'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로서 '三曰弁辰 韓者 古之辰國也'라고 정정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삼국지』나 『후한서』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 된다. 모두 삼한이 존재하기 전에 진국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8)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은 기원전 9세기이지만 그 이상 소급될 소지가 많으며, 하한은 기원전 3세기경이란다. 한편 기원전 3세기는 세형동검의 성립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과 저서 참조.

이영문, 「한국 비파형 동검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38, 1998.

趙鎮先, 『細形銅劍文化的 研究』, 학연문화사, 2005.

9) 李賢惠, 「VI 小國聯盟體의 대두와 三韓의 分立」,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p. 170.

세형동검이나 동과, 동모 등 다양한 청동제 무기를 갖춘 사회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비록 뜻이 맞지 않아 전쟁을 하더라도 패배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였다. 상대방을 해체시키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한 상태에서 단지 상호간의 서열을 정하는 것에 만족한 것이다.¹⁶⁾ 이러한 삼한 연맹체의 사회 성격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백제나 신라와는 전혀 달랐다.

삼한의 軍制 역시 예적 질서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립·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한에서 전쟁은 상대방에 대한 정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 확충은 제한적이었다. 즉 상대방에게 무력을 과시하는 수준이면 족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인 군비 수준은 예적 질서의 창출·강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무력이 없을 때 상호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삼한의 군제는 청동제 무기로 무장한 지배층들이 전사 집단을 구성하여 특권적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피지배층들은 지배층의 사적 예속민으로서 주로 물자 보급만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삼한의 군제는 『삼국지』 부여전에 기록된 ‘적이 있으면 諸加들이 스스로 전투를 하고 하호는 양식을 저다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¹⁷⁾라는 상황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한 연맹체 속에서 소국 거수들이 나라의 크기에 따라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 등의 서열화된 명칭으로 칭해졌듯이, 거수 아래에 있는 소국 내 여러 지배층들도 서열화된 명칭으로 불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국 내 지배층의 명칭은 진한 소국에서 성장한 신라의 官等を 통해 대강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북방 유이민 세력이 건국한 백제와 달리 신라는 진한 지역에 터 잡고 살던 일부 세력¹⁸⁾이 건국하여 발전한 나라이므로 후대

16) 金泰植,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p. 13.
 17) 『三國志』, 夫餘傳,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
 18) 이들은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三國史記』1, 新羅本紀 1)’이라는 바와 같이 기원

에도 진한의 유제를 어느 정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라의 관등을 살펴보면, 京位의 최고위 4관등의 명칭과 外位의 최하위 4관등의 명칭이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간단히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¹⁹⁾

즉 경위 17관등의 최상부에 위치해 있는 一伐干, 一尺干, 波珍干, 阿尺干 등은 외위 11관등²⁰⁾ 중 7관등인 ‘干’ 밑에 편제되어 있는 一伐, 一尺, 彼日, 阿尺 등에 ‘干’이 덧붙여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왕에 직속된 고위 관등명이 지방의 지배층인 干 아래에 있는 관등명과 정확하게 상호 대응하는 사실은 왕과 干뿐만 아니라,²¹⁾ 그 아래 지배층들도 淵源的으로는 성격을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가 진한의 한 소국이었을 당시에 거수 아래의 지배층들은 다른 소국과 마찬가지로 일벌, 일척, 피일, 아척 등의 명칭을 지녔으나, 점차 신라가 다른 소국을 정복·통합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로 성장해가자 그 지배층은 다른 소국의 지배층과 차별화하여 위계 명칭에 ‘干’자를 덧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진한 소국의 지배층들은 일벌, 일척, 피일, 아척 등과 같은 서열화된 명칭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신라 京位와 外位의 대응 관계

京位	一伐干(1)	一尺干(2)	通干(3)	波珍干(4)	大阿尺干(5)	阿尺干(6)
外位	一伐(8)	一尺(9)		彼日(10)		阿尺(11)

* ()안의 숫자는 京位 17관등, 外位 11관등 속의 서열임.

전 2세기경 고조선 지역에서 내려온 이주민 세력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 徐毅植,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 13 참조.
 20) 참고로 외위 11관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巖干(1), 述干(2), 高干(3), 貴干(4), 選干(5), 上干(6), 干(7), 一伐(8), 一尺(9), 彼日(10), 阿尺(11).
 21) 金哲峻,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p. 153.
 여기에서 김 교수는 ‘王 바로 아래 있는 一等階의 伊伐浪(一伐浪)과 … 그 다음의 阿浪과 너무나 音相似한 것이 지방관계인 干 아래 一伐·阿尺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王이 干的인 성격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신라 지배층은 뒤에서 다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국왕과 수직적 상하 관계에 있었지만, 진한 소국의 지배층은 비록 서열화된 명칭을 지녔으나 비교적 독자적인 세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진한 소국의 지배층들은 『삼국지』 부여전의 諸加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소국의 지배층들은 제가처럼 하호들이 거주하는 읍락을 점유하고, 하호들은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적이 있으면 지배층 스스로가 전투를 하는 비교적 독립적인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때 소국 내에서 가장 큰 읍락인 國邑에 거수가 있었고, 나머지 읍락에 각각 지배층들이 거주하였는데, 거수와 지배층들은 수직적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삼한 소국 지배층들이 독자적인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삼국지』 한전의 다음 사료를 들 수 있다.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일반적으로 위 사료는 ‘下戶들도 郡에 가서 朝謁할 적에는 모두 衣幘을 빌려 입으며, 자신의 印綬를 차고 衣幘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 된다’²³⁾ 라고 해석되어, 하호를 지배계층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으나,²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빈민을 뜻하는 하호²⁵⁾가 지배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료는 ‘(소국 지배층의) 下戶들이 군에 가서 朝謁하여 모두 衣幘을 빌려와, (소국 지배층) 스스로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 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즉 하호가 의책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호는 심부름을 할 뿐이었고, 의책을 착용한 것은 소국 지배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삼한 소국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이 직접 낙랑

22) 『三國志』, 韓傳.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23)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1986, p. 49.

24) 洪承基, 『1~3世紀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所謂 ‘下戶’의 實體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63, 1974, p. 26.

25) 『漢書』 24上, 食貨志 4上. 董仲舒의 上言 및 顏師古의 註釋 참조. ‘師古曰 言下戶 貧人’

군이나 대방군에 가서 조알하여 의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호를 시켜 의책을 가져오게 하여 이것을 착용하였던 것이다. 의책을 착용한 소국 지배층이 ‘千餘人’이라고 하였으니, 당시 삼한 소국의 수가 마한 54국, 진한·변진 24국 합 78국이므로,²⁶⁾ 평균 1국당 13명의 지배층이 의책을 착용한 셈이다. 물론 의책을 착용하지 않는 지배층도 상당수에 달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국 지배층들은 비록 일벌, 일척, 피일, 아척 등과 같은 서열화된 명칭을 지녔지만, 각자 자신들의 하호들을 시켜 중국 군현에 가서 의책을 가져와 착용하기도 할 정도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세력이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성립한 삼한 사회는 예적 질서로 운영된 사회였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예적 질서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에 삼한 사회에서는 소국과 소국 간에, 그리고 소국 내 지배층 간에 다양한 차별적인 등급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초기 고구려의 경우²⁷⁾와 같이 진한 연맹체에서도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一丈, 一尺, 彼日, 阿尺 등은 비록 같은 위계라 하여도 同列에 서지 못하였다. 동일한 위계를 가진 지배층이라도 그 나라의 大小에 따라 차별되었다. 삼한 사회는 예적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차별화·차등화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소국 지배층들은 후대의 관료제와 같이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평적이고 독자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국 지배층들은 각각 읍락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그 영역 크기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고, 적이 있으면 스스로 나가 싸웠으며, 한 군현과도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원 전후 무렵 이러한 삼한 사회의 예적 질서는 동요되고 있었다.

우선 마한은 기원 전후 무렵 백제의 등장으로 종래의 정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었다. 북방 유이민들이 한강 유역에 정착하여 마한의 한 소국의

26) 『三國志』, 韓傳.

27) 『三國志』, 高句麗傳. ‘諸大加 亦自置使者·皁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至家臣 會同坐起 不得如王家使者·皁衣·先人同列’

로 출발한 백제는 A.D. 9년(온조왕 27년), 당시 마한 연맹장의 국을 멸망시키고 동서남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진한 사회 역시 기존의 정치 질서가 붕괴되고 있었다. 기원 전후 사로국이 등장하였다. 진한 지역의 6촌이 연합하여 만든 사로국은 출범 직후 마한의 연맹장이자 삼한의 총왕인 진왕에게 바치는 職貢을 거부하고 그를 '西韓王'이라고 폄하하는 등 그 권위를 부정하였으며,²⁹⁾ 이웃 소국들을 무력으로 병탄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한편 종래 소국 거수들을 신지, 협축, 번예, 살해, 읍차 등으로 서열화하여 호칭한 예적 질서도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大者自名爲臣智'³⁰⁾라 하여 큰 나라의 거수는 연맹체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신지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와 같은 삼한 사회의 변동은 철제 농기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으로 촉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철기 문화는 기원 전후 무렵에 이르러 삼한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 弁辰傳에는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었는데, 한과 濊 그리고 倭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랑과 대방의) 두 郡에도 공급하고 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철기의 생산과 유통은 비단 변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삼한 전역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 기원전 1세기경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에는 다량의 철기류와 더불어 판상철부 다발뭉음이 출토되었다.³¹⁾ 또 A.D. 1세기경의 무덤으로 판단되는 경주 사라리 130호분의 부장품 중에도 많은 철기류와 함께 판상철부 70점

28) 拙稿, 앞의 논문, 2007, p. 194.

29)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朴赫居世 38년·39년.

30) 『三國志』, 韓傳.

31) 李清圭, 『철기시대의 사회와 경제』,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7, p. 525.

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판상철부는 무기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피장자의 경제적 척도를 나타내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서,³²⁾ 당시 화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철기가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고, 또 낙랑군·대방군과 濊, 倭에까지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 생산됨에 따라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의 제작과 사용도 상당히 활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第三 弩禮王條에서 이 왕(유리왕: A.D. 24~57)대에 '쟁기와 보습을 만들었다(製犁耜)'라고 기록된 것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 전후 무렵에 널리 확산된 철제 농기구의 사용은 목기나 석기에 비해 노동력과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고, 深耕도 가능하게 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높임으로써 생산력은 높아지게 되었고, 생산력의 향상은 사회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철제 농기구의 소유 여부와 그 양적 질적인 우열 여하에 따라 생산력의 高低와 토지 소유 규모의 大小에 차이가 현저해지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갔다. 이에 따라 읍락 간에, 소국 사이에, 또 계급 간에 새로운 분화와 격차가 촉발되었고 점차 읍락민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읍락과 읍락 사이의, 연맹한 국가 간의 연대를 파괴시키고 서로 갈등과 대립·침략으로 치닫게 하였다.³³⁾

기원 전후 무렵에는 '民饑相食 盜賊大起'³⁴⁾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도적떼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삼국지』 한전에서 이 시기 백성들이 '도적질하기를 좋아한다(好作賊)'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들이 도적떼로 변하는 것은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사회 분화 속에서 종래의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계급, 읍락, 소국

32) 朴廣春, 『洛東江 流域의 初期國家 成立』, 『한국상고사학보』 39호, 2003.

33) 李景植,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p. 38-56.

34)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33년.

『三國史記』의 온조왕 4년, 남해차차웅 15년, 유리이사금 5년, 탈해이사금 19년, 파사이사금 29년 등에도 기근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

간에 분화와 격차가 촉발되자 삼한 연맹체의 예적 질서도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로국, 즉 신라가 건국된 것이다. 신라의 건국 과정을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6부의 조상들이 각각 子弟를 거느리고 關川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위로 임금의 없애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방자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³⁵⁾

위와 같이 백성들이 방자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라 건국이 이루어졌다.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사회 분화 속에서 종래의 농촌공동체, 읍락사회, 삼한 연맹체의 예적 질서가 붕괴되자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이 요구된 것이다.

3. 이사금 시기 6部兵制의 성립

신라는 삼한 연맹체의 禮的 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건국되었다. 종래 하호들을 보호해주던 농촌공동체와 읍락사회³⁶⁾가 파괴되고, 읍락과 읍락,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연대가 해체되며 상호 갈등과 대립, 침략이 빈번한 가운데 건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소국의 지배층들이 읍락을 統主하며 상호 독립적인 가운데 예적 질서를 유지하는 삼한 연맹체의 체제로는 철제 농기

35) 『三國遺事』 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 ‘前漢地節元年壬子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欲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36) 고조선, 부여, 진국 내지 여러 列國이 小國 또는 연맹왕국이었을 단계까지 농촌공동체는 사회의 기본 생산단위였고, 읍락사회는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李景植, 앞의 책, 2005, p. 36 참조.

구의 확산으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사회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한 국가체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진한 지역의 6개 읍락이 연합하여 有德人을 찾아 군주로 삼고 ‘立邦設都’하게 된 것이다.³⁷⁾

신라는 건국하자마자 대내적, 대외적 체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내적으로는 종래의 하호를 대신하여 주생산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한 자영소농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농업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건국 즉시 표명되었다. 『삼국사기』 혁거세 17년(41) 조에는 국왕이 왕비를 대동하고 6부를 巡撫하며 農桑을 장려하는 모습이 기재되어 있다.³⁸⁾ 농업 생산의 증진은 賦稅 수입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세 수입은 새롭게 건국된 신라의 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종래 삼한에서 읍락 단위로 수취하였던 공물과 달리 부세는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하였다. 이에 신라 국가는 농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는 ‘民饑 發倉廩救之’,³⁹⁾ ‘民饑 發倉賑給’⁴⁰⁾이라는 바와 같이 백성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을 때 창고를 열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라는 새로운 군사조직으로서 6部兵을 설치·운영하였다. 6부병은 6개의 읍락이 연합하여 신라를 건국한 것처럼 6개의 읍락 백성들로 구성되었다.⁴¹⁾ 즉 6개의 읍락은 梁部(喙部), 沙梁部(沙喙部), 漸梁部(岑喙部·牟梁部), 本彼部, 漢祇部, 習比部(斯彼部) 등 6부를 형성하여, 각 部民들 중

37) 주 35와 同.

38)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赫居世居西干 17년. ‘王巡撫六部 妃關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39)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南解次次雄 15년 7월.

40)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19년.

41) 李賢惠, 『V. 三韓 小國의 成長』,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p. 159. 李文基,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27집, 2001, p. 97.

에서 유력자를 군인으로 뽑아서 내보낸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해차차웅 11년(14)에는 낙랑의 군대를 몰아내는데 ‘六部兵 一千人’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사로국 당시 6부병은 대략 1,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6부에서 각각 군인을 내보내 모두 1,000명을 이루었으므로 1部 당 평균 167명이 차출된 셈이다. 그런데 사로국 형성 당시 6촌에는 각각 500호, 2,500명 정도의 戶口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⁴²⁾ 이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각 부에서는 대략 3호 당 1명꼴로 부병을 내보낸 셈이다. 이와 같이 部兵은 처음에는 모두 농민으로서 농사일을 하다가 전쟁이 있으면 부민으로서 유력한 사람이 차출되어 출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복 전쟁이 거듭되면서 부병들은 점차 전문적인 무사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이사금 시기 병력이 명시된 전쟁 기사

시 기	병력	내 용
남해차차웅 11년(14)	1,000	樂浪謂內虛 來攻金城 … 六部兵一千人追之
탈해이사금 8년(64) 10월	2,000	(百濟) 又攻狗壤城 王遣騎二千 擊走之
파사이사금 15년(94) 2월	1,000	加耶賊圍馬頭城 遣阿浪吉元 將騎一千 擊走之
파사이사금 17년(96) 9월	5,000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出戰
지마이사금 5년(116) 8월	10,000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아달라이사금 14년(167) 8월	28,000	命一吉浪興宣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벌휴이사금 7년(190) 8월	500	百濟襲西境圓山鄉 … 仇道率勁騎五百擊之
나해이사금 19년(214) 7월	6,000	王命伊伐浪利音 率精兵六千伐百濟
미추이사금 5년(266) 8월	200	百濟來攻烽山城 城主直宣率壯士二百人出擊之
내물이사금 9년(364) 4월	1,000	倭兵大至 … 伏勇士一千於斧峴東原
내물이사금 38년(393) 5월	1,200	倭人來圍金城 … 王先遣勇騎二百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전거 : 『三國史記』, 新羅本紀

42)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7, p. 32.

그런데 근래 6부병은 6部の 지배층들이 각 부 단위로 부민들을 군사로 동원하여 편성한 군대이므로 이사금 시기에는 6부 지배층들의 자율성이 강하였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육부병은 외형상 신라국왕의 지휘권 내에 포섭되어 있었지만, 그 운용방식에서는 신라국왕보다는 각 부의 지배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관철되고 있던 군사 조직이었다.⁴³⁾ 이사금 시기에 6부 지배층들의 자율성이 강하였다는 증거로 흔히 파사이사금 23년(102) 조의 다음 기사가 거론된다.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이 영토를 두고 다투다가 왕에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하고 아는 바가 많다고 하면서 불려서 물었다. 수로왕이 논의하여, 문제가 된 땅을 음즙벌국에 귀속토록 결정하였다. 이에 왕은 6부에 명해 수로왕을 위해 잔치를 열라고 하였다. 5부는 모두 이찬을 주로 하여 보냈으나 오직 漢祗部만이 位가 낮은 자를 보냈다. 수로왕이 怒하여 奴 耽下里에게 명하여 漢祗部主 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미처 수로왕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 奴는 도망하여 音汁伐主 陁鄒干의 집에 숨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수색하게 하였으나 陁鄒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주가 무리와 더불어 스스로 항복하였고, 悉直·押督 2국의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⁴⁴⁾

위 기사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가운데 드물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라초기에 관한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사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아직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위 기사에서 한기부가 位가 낮은 자를 보낸 것을 사로국왕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른 것으로 보거나,⁴⁵⁾ 6부는 이사금에게 일사불

43) 李文基, 앞의 논문, 2001, p. 100.

44)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3년 8월.

45)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6, p. 86.

관하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었고,⁴⁶⁾ 각 읍락이 독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증거로 삼고 있다.⁴⁷⁾

그러나 위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한기부에서 位가 낮은 자를 보낸 것은 사로국왕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일은 아니었다. 왕은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해 잔치를 열라고 했을 뿐이다. 이에 다른 5부는 모두 이찬을 보냈으나 한기부는 지위가 낮은 자를 보낸 것이다. 여기서 한기부가 지위가 낮은 자를 보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수로왕에 대한 불만이나 멸시의 뜻이 담겨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로왕이 노하여 奴 耽下里를 보내어 한기부주 保齊를 죽이자 파사이사금은 노하여 탐하리를 쫓고, 탐하리가 음즙벌국으로 도망가자 군사를 일으켜 탐하리를 숨겨준 음즙벌국을 친 것이다. 이것은 한기부주가 금관국에 대한 우월 의식 속에서 수로왕을 멸시하였으며, 사로국왕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6부 지배층을 해친 자를 철저히 찾아 응징한다는 내용이지, 6부 지배층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사료는 결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사료에는 6부 지배층의 사로국 우월 의식과 6부 지배층에 대한 사로국왕의 보호와 배려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가 『신라본기』에 실려 후대에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금 시기의 6부병은 部 단위로 움직이는 병력이 아니라 국왕의 명에 따라 운영되는 군사조직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단결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진한 소국들을 차례차례 통합·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 즉 신라는 于尸山國·居柒山國(탈해 代), 音汁伐國·悉直國·押督國(파사 23년), 比只國·多伐國·草八國(파사 29년), 召文國(벌휴 2년), 甘文國(조분 2년), 骨伐國(조분 7년), 沙伐國(침해 代), 伊西國(유례 14년 이전) 등 진한 소국을 차례차례 정복하여 3세기 말에는 진한을 완전히 통합하였다.⁴⁸⁾

46)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6, p. 51.

47) 朱甫墩, 『斯盧國을 둘러싼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21집, 2003, p. 37

48) 李宇泰, 『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p. 34.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신라의 선진적인 기마전술,⁴⁹⁾ 철제 무기와 군량미의 원활한 보급과 더불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단결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가 진한 소국을 정복해나감에 따라 병력도 증강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남해 11년(14)에 1,000명에 불과하던 신라의 병력은 탈해 8년(64) 2,000명, 파사 17년(96) 5,000명, 지마 5년(116) 10,000명, 아달라 14년(167) 28,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기록된 연도와 병력의 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병력 증강의 추세는 대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병력의 증강은 정복된 소국의 병력이 함께 동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복된 소국이 郡의 형태로 편제되고, 이러한 郡의 병력이 6부병과 함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삼국사기』 勿稽子 열전에 있는 다음 사료에 잘 나타난다.

8개의 浦上國이 함께 모의하여 阿羅國을 치니 阿羅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이 王孫 捺音으로 하여금 近郡 및 六部軍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여 드디어 八國의 군사를 破하였다.⁵⁰⁾

포상 8국과의 전쟁에 관한 이 사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14年(209) 조와 『삼국유사』 물계자 조에도 실려 있어 신빙성을 더하는데,⁵¹⁾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이 전쟁에서 6,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6,000명을 포로로 잡았다면 近郡과 6부병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병력은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초기에는 6부

49) 『三國史記』 44, 列傳 4, 居道 條에는 신라의 선진적인 기마전술이 잘 소개되어 있다.

50) 『三國史記』 48, 列傳 8, 勿稽子.

51)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奈解尼師今 14年 7월.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三國遺事』 5, 避隱 8, 勿稽子.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等 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捺音 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병만이 존재하였으나, 차츰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소국의 병력도 함께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신라의 영역이 확대되고 병력이 증강되면서 군사조직 체제와 군사지휘 체계도 차츰 정비되어 갔다. 신라가 초기의 6부병 단독 체제에서 점차 6부병과 郡의 군대가 함께 동원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군사조직도 內兵과 外兵으로 분리되었다. 逸聖尼師今 3년(136)에는 ‘拜雄宜爲伊漁 兼知內外兵馬事’⁵²⁾라 하여 內外兵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내외병마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진흥왕 대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아,⁵³⁾ 신라 초기에 내병과 외병이 분리·설치되어 있고, 이들을 통칭하여 내외병마라 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인다. 여기에서 내병은 중앙군으로서 6부병을 가리키고, 외병은 지방군으로서 정복·통합된 소국의 병력을 지칭하였다.

이사금 시기 신라 군대의 주력은 왕경인으로 구성된 6부병이었다. 이들은 신라 건국 무렵에는 6부민으로서 군역에 동원되었지만, 차츰 신라가 소국을 정복하고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지배층으로 부상하여 고구려의 大家와 마찬가지로 왕경에서 坐食者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⁵⁴⁾ 이들은 소국 정복 과정에서 戰功을 세울 경우 이에 따른 官等과 祿邑을 받았다.⁵⁵⁾ 특히 관등은 이들의 정치 생활과 군사 활동을 규제하였다. 신라 초기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軍政一致 사회로서, 6부병들은 평시에는 자신의 관등에 해당하는 정치적 업무에 종사하였고, 전시에는 자신의 관등에 따른 군사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관등은 6부병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였다.⁵⁶⁾ 앞에서 소개한 포상 8국의 전쟁에서 勿稽子는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

52)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逸聖尼師今 3년 정월.

53) 內外兵馬事라는 용어는 逸聖 3년 이외에도 逸聖 18년, 奈解 12년, 味鄒 2년, 基臨 2년, 訖解 2년 그리고 眞興王 2년에 보이고 있다.

54) 『三國志』, 高句麗傳.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55) 신라 초기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제인 祿邑에 대해서는 李景植, 『新羅時期 祿邑制의 施行과 그 推移』, 『歷史教育』 72, 1999 참조.

56) 『三國史記』에서는 이사금기에 人事關係 기록이 총 46건 보이는데 그 중 38건이 관등 수

는 상을 받지 못하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琴을 끼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의 상이란 관등의 승진을 의미할 것이다.⁵⁷⁾ 신라 상고기는 아직 골품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등의 승진은 자신과 일족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6부병들은 관등 승진을 위해 분투하였고, 이것이 신라 전투력 향상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부병은 신라 초기 정치와 군사에서 중추적 존재였다. 상고기에 이들은 國城인 왕경에 거주하여 國人⁵⁸⁾이라고도 칭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서기』에는 5세기 중엽 신라 국인이 당시 신라 경내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정예 병사 100명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온다.⁵⁹⁾ 이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마립간 시기의 정황을 보여주는데, ‘국인=6부병’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이다. 국인이 6부병과 같은 군인이어야 고구려 군인 100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즉위년 조에

처음에 脫解가 돌아가매 臣僚들이 儒理太子 逸聖을 세우려 하다가, 혹자가 逸聖이 비록 嫡嗣라고는 하지만 威明이 婆娑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드디어 그를 세웠다. 婆娑는 節儉省用하고 民을 사랑하여 國人들이 좋게 여겼다.

라는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인은 臣僚와 民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였다. 위 기사에는 臣僚와 民, 國人 세 계층이 나오는데, 신료들이 逸聖을 이

여 기사에서 이 시기 관등이 점한 비중이 그만큼 컸음을 반영하고 있다(徐毅植, 앞의 논문, 1994, p. 107).

57) 『三國遺事』 5, 避隱 8, 勿稽子 條에서는 물계자가 태자의 미움을 받아 ‘不賞其功’하다고 하였으나, 『三國史記』, 勿稽子傳에서는 ‘不記其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賞이란 功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을 기록하는 것은 관등을 올려주기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58) ‘國人者 謂住在國城之內(『周禮』地官, 泉府. 賈公彥疏)’.

신라의 國人에 대해서는 南在祐, 『新羅上古期の ‘國人’層』, 『韓國上古史學報』 10, 1992: 최의광,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新羅 ‘國人’ 記事 檢討, 『新羅文化』 25, 2005 등이 참고된다.

59)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8년 2월.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사금으로 세우려다가 실패하고 婆娑가 이사금이 되어 民을 사랑하자 국민이 좋게 여겼다는 내용으로 보아, 국민은 신료와 민 사이에 위치한 존재인 것이다. 이 역시 국민이 6부병임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사금 시기 신라에서 신료와 민 사이에 있는 존재로는 6부병 이외에 딱히 다른 부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금 시기에 6부병, 즉 국민은 국가의 중추적 존재로서 국가 비상시에 이들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왕위 계승이 확실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은 왕위 계승자를 결정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즉 ‘阿達羅薨 無子 國人立之’,⁶⁰⁾ ‘沾解無子 國人立味鄒’,⁶¹⁾ ‘奈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⁶²⁾ 등과 같이 先王이 후계자 없이 죽거나, 후계자가 있으되 어릴 경우 국민들은 왕위 계승에 관여하고 있었고, 위에서 소개한 파사이사금의 경우나 조분이사금의 경우 ‘國人嘉之’,⁶³⁾ ‘國人畏敬之’⁶⁴⁾라 하여 왕위 계승 결과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다. 비상시 국왕은 국민, 즉 6부병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사금 시기 6부병은 국가의 중추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사금 시기에는 6부병뿐만 아니라 정복·통합된 소국 지역의 병력도 존재하였다. 6부병을 內兵이라 한데 대해 이들은 外兵이라고 불렀다. 신라는 정복한 지역민을 外兵으로 편제하고 6부병 출신의 군관을 파견하여 이들을 지휘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초기에는 항복하거나 정복한 나라의 지배층을 축출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두고 피정복 소국을 복속시키는 간접지배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삼한의 예적 전통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사 23년(102)에 悉直·押督 2국이 항복하였는데, 파사 25

60)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伐休尼師今 즉위년.

61)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味鄒尼師今 즉위년.

62)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즉위년.

63)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즉위년.

64)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즉위년.

년 7월에 悉直이 叛하였고,⁶⁵⁾ 일성 13년 10월 押督이 叛하는 등⁶⁶⁾ 정복된 나라가 배반하자 지배층을 축출하고 정복한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첨해 15년(261)에 達伐城을 쌓고 奈麻 克宗을 城主로 삼았다거나,⁶⁷⁾ 朴堤上이 敵良州干(『삼국사기』 朴堤上傳) 혹은 敵羅郡 太守(『삼국유사』 金堤上)를 역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직접지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사금 시기에 신라는 정복한 지역에 外官을 파견하여 外兵을 통솔하게 하였다. 외병은 주로 지방 농민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사력 수준은 6부병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이사금 시기에 내병과 외병 등으로 군사조직이 갖추어지자 군사지휘 체계도 정비되어 갔다. 왕정국가에서 모든 병권은 국왕이 장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신라 역시 왕정국가로서 국왕이 국가의 병권을 총괄하는 체제였다. 국왕은 ‘王遣騎二千’⁶⁸⁾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군대의 출동을 명하기도 하고, ‘王怒 率勇士五千出戰’⁶⁹⁾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기도 하였다. 국왕은 군사통수권자인 것이다. 그런데 국왕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어 후대의 재상과 같이 왕을 보좌하는 관직을 두었다. 南解 7년(10)에는 大輔의 직을 설치하고 군국정사를 맡긴 일이 처음 기록되어 있고,⁷⁰⁾ 逸聖 3년(136)에는 군사조직이 내병과 외병으로 분화됨에 따라 雄宣을 伊滄에 제수하고 내외병마의 일을 겸하여 맡도록 하였다.⁷¹⁾ 이러한 伊滄, 伊伐滄 등은 군사 활동이 있을 때 내병과 외병의 연합군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전투에서 패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奈解 25년(220)에 이별

65)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5년 7월.

66)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逸聖尼師今 13년 10월.

67)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沾解尼師今 15년 2월. ‘築達伐城 以奈麻克宗爲城主’

68)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8년 10월.

69)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17년 9월.

70)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南解次次雄 7년 7월. ‘以脫解爲大輔 委以軍國政事’

71)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逸聖尼師今 3년 정월. ‘拜雄宣爲伊滄 兼知內外兵馬事’

찬이 되어 兵馬의 일을 맡아 보던 忠蒼은 奈解 27년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鎭主로 좌천되고 그 대신 連珍이 이별찬이 되어 병마의 일을 맡아 보았다.⁷²⁾ 이별찬, 이찬 등은 국왕과 수직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국왕의 任免에 의해 정치적 지위가 결정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당시 이별찬, 이찬 등은 내외병마와 국정을 총괄하는 유력자로서 그 정치적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다.⁷³⁾

한편 伐休 2년(185)에는 ‘拜波珍漁仇道·一吉漁仇須兮爲左右軍主’⁷⁴⁾라고 하는 바와 같이 左·右軍主를 두어 6부병을 각각 좌우로 나누어 통솔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주는 京位 4등급인 파진찬과 7등급인 일길찬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내외병마를 총괄하는 이별찬, 이찬의 하위 무관인 것으로 보인다. 군주는 內兵인 6부병만을 통솔하였다. 이것은 伐休 7년(190) 左軍主인 仇道가 勁騎 500명을 거느리고 백제 침략군과 싸우다 패하자 부곡성주로 좌천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⁷⁵⁾ 좌군주 구도는 1,000명으로 이루어진 6부병의 절반인 500명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렇게 6부병을 2명의 군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 것은 병권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⁷⁶⁾ 6부병은 신라 최정예 군대이고 또 유사시 국왕을 옹립하기도 하는 등 권력의 중추세력이어서 1인의 군주에게 맡겨두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있었다.

72)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奈解尼師今 27년 10월.

73) 이별찬, 이찬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로서 왕 아래에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갔던 인물이었다(趙榮濟, 『新羅 上古 伊伐漁, 伊漁에 대한 一考察』, 『釜山史學』 7, 1983, p. 20).

74)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伐休尼師今 2년 2월.

75)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伐休尼師今 7년 8월. ‘百濟襲西境圓山鄉 又進圍岳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百濟兵佯走 仇道追及蛙山 爲百濟所敗 王以仇道失策 貶爲岳谷城主 以薛支爲左軍主’

76) 李宇泰, 앞의 논문, 1991, p. 20.

4. 마립간 시기 2部兵制로의 개편

앞 장에서는 이사금 시기의 6부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6부병이라는 명칭은 마립간 시기나 中古期 등 그 이후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기록상으로 6부병이라는 용어는 奈解尼師今 14년(212)을 끝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6부병이 6세기 범흥왕 대나 진흥왕 대에 가서 해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⁷⁷⁾ 그 근거는 분명치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근래 발견된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비문은 마립간 시기의 중앙군이 6부병제가 아닌 2부병제 형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게 한다.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왕경인 30여 명 가운데 喙部和 沙喙部 소속이 대부분이며, 이들만이 관등을 지니고 있다. 이 2부를 제외한 本彼部나 斯彼部, 峇喙部 소속은 각각 1명씩만 나타날 뿐 아니라, 관등도 없고 다만 干支만을 칭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軍政一致 사회였고, 문관과 무관이 하나로 된 文武一致 사회였다. 모든 관등 소유자는 관료이자 군인이었다. 따라서 韃部和 사해부 소속 왕경인만이 관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마립간 시기의 군대는 이 2부 소속 왕경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사금 시기의 중앙군이 6부병제로 운영되었다면 마립간 시기의 중앙군은 2부병제로 운영되었다.

6부병제가 2부병제로 개편된 시기는 마립간 왕호가 개창되는 눌지마립간 때 이외에는 달리 찾아지지 않는다.⁷⁸⁾ 눌지마립간은 실성이사금이 國人,

77) 주 4, 5 참조.

78) 최근까지 麻立干期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라는 점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양정석, 「신라 麻立干期 왕권강화 과정과 지방정책」, 『韓國史學報』 창간호, 1996 참조). 본 논문은 『삼국사기』에 따라 訥祗代를 마립간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립간 시기와 중고기의 정치·사회가 2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신라 중고기의 여러 금석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이다.

<표 3>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왕경인

냉수리비				봉평비			
	소속	인명	지위(관등)		소속	인명	지위(관등)
	喙	斯夫智	王		喙部	牟卽智	寐錦王
		乃智	王		沙喙部	徙夫智	葛文王
	沙喙	至都盧	葛文王		本波部	□夫智	干支
	...	斯德智	阿干支(6)		岑喙部	美昕智	干支
	...	子宿智	居伐干支(9)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5)
	喙	尔夫智	壹干支(2)		...	吉先智	阿干支(6)
	...	只心智	居伐干支(9)		...	一毒夫智	一吉干支(7)
	本彼	頭腹智	干支		喙	勿力智	一吉干支(7)
	斯彼	暮斯智	干支		...	慎穴智	居伐干支(9)
	...	一夫智	太奈麻(10)		...	一尔智	太奈麻(10)
典 事 人	沙喙	壹夫智	奈麻(11)	...	牟心智	奈麻(11)	
	...	到盧弗		沙喙部	十斯智	奈麻(11)	
	...	須仇休		...	悉尔智	奈麻(11)	
	喙	心誓公	耽須道使	大 人	喙部	内沙智	奈麻(11)
	喙	沙夫			沙喙部	一登智	奈麻(11)
	...	那斯利			...	男次	邪足智(17)
	沙喙	蘇那支			喙部	比須婁	邪足智(17)

즉 6부병에 의해 추대된 것⁷⁹⁾과는 달리 실성이사금을 시해하고自立하여 왕이 되었다.⁸⁰⁾ 눌지마립간은 자신의 추종 세력과 당시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도움으로 실성이사금 16년(417) 5월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는데,⁸¹⁾ 이것은 신라 중앙 정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또 6부병

79) 주 62와 同.
 80)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元年.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
 81) 『三國遺事』 1, 紀異 2, 第十八實聖王. '王忌憚前王太子訥祗有德望 將害之 請高麗兵 而許迎訥祗 高麗人見訥祗有賢行 乃倒戈而殺王 乃立訥祗爲王而去'

이 추대한 실성이사금을 무력으로 제거한 쿠데타에 대한 6부병들의 동요와 반발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눌지마립간과 추종 세력은 고구려와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위세를 등에 업고 6부병들의 동요와 반발을 억누르면서 김씨 왕족의 독점적 정치체제를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환으로서 눌지마립간은 6부병을 喙部和 沙喙部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처럼 6부병이 왕경 6부에 분산 거주하고 있으면 통제와 감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지연과 혈연으로 묶여있던 6부병을 지연과 혈연에서 분리된 국가의 公兵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개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6부병의 2부로의 이주는 반발하는 자를 제거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눌지마립간은 외국에 인질로 나가있던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들여 갈문왕으로 삼아, 靺婁의 병사들은 麻立干이, 사해부의 병사들은 葛文王이 통솔하는 이원적 군사 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마립간은 靺婁를 관장하면서 신라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그 다음의 유력자는 사해부를 맡으면서 갈문왕으로서 마립간의 뒤를 받치는, 권력의 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⁸²⁾ 따라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乃智王과 牟卽智 寐錦王은 靺婁에, 至都盧 葛文王과 徙夫智 葛文王은 사해부에 소속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눌지마립간이 6부병제를 2부병제로 개편한 것은 쿠데타 이후에 취해진 비상 조치였다. 그런데 신라에서 6부를 둘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경쟁을 시키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다. 유리이사금 9년(32) 6부를 둘로 나누어 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부의 여자를 거느리게 하고 서로 길쌈 경쟁을 시켰으며,⁸³⁾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伐休 2년(185)에는 6부병들을 左·右 둘로 나누어 좌·우 軍主로 하여금 각각 통솔하게 하였다. 左·右 軍主들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군대의 안전성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비록 6부는 아니지만 각 小京에도 지방관을 2인씩 파견하였고, 지방 각 郡

82) 姜鍾薰, 『新羅 六部體制의 成立과 展開』, 『震檀學報』 83, 1997, p. 17.
 83)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儒理尼師今 9年.

에도 村主를 2명씩 두어 서로 견제하게 하였다.⁸⁴⁾ 이와 같이 신라는 이원적 체제 운영에 익숙하였다. 6부병을 둘로 나누어 2부병으로 편성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6부병제가 2부병제로 개편되고, 2부병을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통솔하면서 部兵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이사금 시기에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이던 國人이 마립간 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정치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⁸⁵⁾

6부병이 2부병으로 개편됨에 따라 군사지휘 체계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 사금 시기의 6부병제하에서는 伊伐滄(舒弗部), 伊滄 등이 '兼知(内外)兵馬事',⁸⁶⁾ '委以軍國(之)事'⁸⁷⁾ 등의 조치를 통해 군대의 최고 지휘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2부병제가 되면서 이런 관례는 폐기되었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실성이사금 2년(403) 末斯品을 舒弗部으로 삼고 '委以軍國之事'한 이후 더 이상 '兼知(内外)兵馬事'라거나, '委以軍國(之)事' 등과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마립간 시기에 들어와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喙部和 沙喙部를 통솔하였으므로, 왕 이외에 별도의 인물을 선정하여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맡기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또 左右 軍主를 두어 중앙군을 통솔하게 하는 관행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차츰 2부병제가 확립되고 정국이 안정되면서 자비마립간 16년(473)에 다시 左右 將軍을 설치하였다.⁸⁸⁾ 마립간과 갈문왕이 매번 전투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눌지마립간 28년(444)에 국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⁸⁹⁾과 같은 상황도 장군직

84)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 137-138.
 85) 梁正錫, 『新羅 麻立干期 王의 統治形態 -訥祗麻立干代를 中心으로-』, 『新羅文化』 15집, 1998, p. 130.
 86)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逸聖尼師今 3년·18년, 奈解尼師今 12년·25년·27년, 助賁尼師今 15년, 味鄒尼師今 2년, 基臨尼師今 2년, 訖解尼師今 2년.
 87) 『三國史記』 2·3, 新羅本紀 2·3, 助賁尼師今 원년, 實聖尼師今 2년.
 88)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慈悲麻立干 16년 정월, '以阿滄伐智·級滄德智爲左右將軍'
 89)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28년 4월.

을 설치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국왕의 안전을 위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다.

6부병이 喙부와 사훼부로 이주할 당시에는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주하였겠지만, 차츰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喙부와 사훼부의 부병과 그 가족들은 특권층이 되었다.⁹⁰⁾ 중앙의 관위는 이 2부 출신에게 독점되었고, 나머지 4부에는 관위를 가진 지배층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⁹¹⁾ 한편 마립간이 이끄는 喙부와 갈문왕이 이끄는 사훼부는 왕의 군대라는 특권의식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도 했다. 신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2부병들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이용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 마립간 시기에 세워진 비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중고기에 세워진 비석을 통해서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중고기에 세워진 창녕비(진흥왕 22년 건립)와 남산신성비(진평왕 13년 건립) 중에 나타난 왕경인의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다.

<표 4> 창녕비와 남산신성비에 보이는 왕경인(부분)

창녕비				남산신성비				
職名	所屬	人名	官等	구분	職名	所屬	人名	官等
上州行使大等	沙喙喙	宿欣智	及尺干	제1비	阿良邏頭	沙喙	音乃古	大舍
		次叱智	奈末		奴含道使	沙喙	合親	大舍
下州行使大等	沙喙喙	春夫智	大奈末	제2비	營沽道使	沙喙	△△△知	大舍
		就舜智	大舍		阿旦兮村道使	沙喙	勿生次	小舍
于抽悉直河西阿郡使大等	喙沙喙	比戶智	大奈末	제2비	仇利城道使	沙喙	級知	小舍
		須兵夫智	奈末		答大支村道使	△喙	所叱△知	△△

90) 신문왕 3년(683) 5월 국왕이 一吉滄 金欽運의 딸을 왕비로 삼을 때, 及梁部和 沙梁部 2부의 부인 각 30명이 왕비를 맞이하여 왔다(『三國史記』 8, 『新羅本紀』 8, 神文王 3년 5월). 신라 중대까지도 喙부(梁部, 及梁部)와 사훼부(沙梁部)는 특권층이 많이 살던 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91) 文暉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の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p. 168.

일반적으로 <표 4>의 창녕비와 남산신성비에 나오는 지방관들의 소속이 靺婁부와 사해부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지방 지배를 단위정치체인 靺婁부와 사해부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의 '部體制'적 정치운영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⁹²⁾ 그러나 이것은 '부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부분의 창녕비에서 上州, 下州 등에 使大等を 파견할 때 靺婁부와 사해부 소속 인물을 각각 1명씩 파견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⁹³⁾ 삼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州와 같은 광역의 행정 구역에 지방관을 1명씩 파견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는 불안한 일이었다. 만약 이들이 신라 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적국과 내통하면 신라는 전력상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또 2명을 파견하되 같은 부 소속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도 불안하였다. 이들끼리 서로 공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라 정부는 靺婁부와 사해부 출신의 군관 1명씩을 같은 주에 보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뒷부분의 남산신성비의 경우, 왕경 주위에 산성을 쌓을 때에는 같은 구역에 동일한 부 소속 지방관을 배속하였다. 이것은 같은 구역 내에서 협동을 도모하고, 또 다른 구역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마립간 시기 신라는 2부병제를 운영하면서 부병 간의 상호 견제와 경쟁 심리를 이용하여 지방 지배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마립간 시기의 2부병제는 비상조치로 만들어진 군제였다. 눌지마립간과 그 추종세력이 김씨 왕족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6부병제를 2부병제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중앙군을 분담하는 이원적 체제는 김씨 왕족의 배타적 무력 독점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김씨 왕족 내에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다. 마립간과 갈문왕이 대립할 때에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2부병제는 중고기에 들어와 일원적 지

92) 姜鳳龍, 앞의 논문, 1994, p. 141.

93) 金哲堉 교수도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歷史學報』 1·2, 1952)에서 이것을 '靺婁부와 사해부를 주축으로 하는 상호 감시를 위한 배치 방법'으로 보았다.

휘체계로 재편된다. 이것은 법흥왕 3년(516)의 兵部令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⁹⁴⁾ 병부령은 '兵部令 掌內外兵馬事'⁹⁵⁾라는 바와 같이 內外兵馬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이사금 시기 6부병제 당시의 伊伐滄(舒弗郡), 伊滄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것이다. 법흥왕 때 이러한 병부령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2부병제가 해체되고 다시 국왕하에 일원적인 군사 지휘 체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흥왕은 마립간과 갈문왕이 靺婁부와 사해부를 공동 관리하는 2부병제를 재편하여 국왕이 2부병 모두를 統帥하는 大王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⁹⁶⁾

한편 법흥왕 18년(531)에는 國事를 摠知하는 上大等 직이 설치되었다.⁹⁷⁾ 이로써 병부령은 단지 內外兵馬만을 관장하였고, 국사를 담당하는 행정권은 상대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중고기의 병부령은 모든 국무를 총괄하는 이사금 시기의 이별찬, 이찬 등과 달리 내외병마만을 관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軍政과 國政이 각각 병부령과 상대등에게 나누어 위임하게 됨으로써 왕권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흥왕 대에 들어서 2부병은 다시 大幢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⁹⁸⁾

눌지마립간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개편한 2부병제는 마립간 시기 근 100년을 유지하다가 중고기에 들어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부병제가 이후 신라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중고기에 들어와 2부병이 大幢으로 통합되었지만 앞의 창녕비와 남산신성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2부병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94) 『三國史記』 38, 雜志 7, 職官 上.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95)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眞興王 2년 3월.

96) 신라에서 大王(太王)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蔚州 川前里 書石 追銘, 乙卯銘에서 확인되듯이 법흥왕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대왕 체제에 대해서는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2 참조.

97)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法興王 18년 4월. '拜伊滄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98) 『三國史記』 40, 雜志 9, 職官 下, 武官. '六停 一曰 大幢 眞興王五年始置'

5. 맺 음 말

지금까지 신라 상고기 군제의 성립 배경으로서 진한의 정치체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이사금 시기와 마립간 시기 군제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진한 연맹체의 禮的 질서가 붕괴되는 가운데 건국되었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농촌 공동체와 읍락사회가 파괴되고, 읍락과 읍락, 國과 國의 연대가 해체되며 상호 갈등과 대립, 침략이 빈번한 가운데 그 건국이 이루어졌다. 소국의 지배층들이 읍락을 統主하며 상호 독립적인 가운데 예적 질서를 유지해가던 고대국가의 체제로는 철제 농기구의 확산으로 촉발된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사회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한 국가체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진한 지역의 6개 읍락이 연합하여 신라를 건국한 것이다. 초기 신라의 군제는 6부병제로 운영되었다. 6부병은 6개의 읍락이 연합하여 사로국을 건국한 것처럼 6개의 읍락민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6부병은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탈해이사금 대에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3세기 말에는 진한을 완전히 통합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선진적인 기마전술, 철제 무기 등과 더불어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가 진한 소국을 정복해나감에 따라 병력도 증강되었다. 초기에 6부병은 대략 1,000명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군역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아달라이사금 시기에는 무려 28,000명의 병력이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병력의 증강은 정복된 소국의 병력이 함께 동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신라는 정복한 소국을 郡의 형태로 편제하고, 이러한 郡의 병력을 6부병과 함께 전쟁에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의 군사조직은 內兵과 外兵으로 분리되었다. 내병은 중앙군으로서 6부병을 가리키고, 외병은 郡의 병력을 지칭하였다. 이사금 시기 신라 군대의 주력은 내병인 6부병이었다. 이들은 전원 왕경에 거주하여 國人이라고도 칭해졌다. 6부병은 귀족과 민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의 중추적 존재로서, 국가 비상시에 이들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왕위 계승이 확실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은 왕위 계승자를 결정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신라는 정복한 지역에 외관을 파견하여 외병을 통솔하게 하였는데, 외병은 주로 농민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사력 수준은 6부병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이사금 시기의 군사조직이 6부병제로 운영되었다면, 마립간 시기의 군사조직은 2부병제로 운영되었다. 6부병제가 2부병제로 개편되는 시기는 놀지마립간 때로 추정된다. 놀지마립간은 6부병에 의해 추대된 실성이사금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는데, 놀지마립간은 왕위에 오른 직후 정국의 안정을 위해 6부병제를 해체하고 2부병제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은 6부에 고르게 흩어져 있던 6부병을 喙部和 沙喙部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식이었다. 이후 놀지마립간은 靺婁의 병사들은 마립간이, 사해부의 병사들은 갈문왕이 통솔하는 이원적 군사 체제를 수립하였다. 6부병제가 2부병제로 개편됨에 따라 군사지휘 체계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사금 시기의 6부병제하에서는 이별찬, 이찬 등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2부병제가 되면서 이런 관례는 폐기되었다. 마립간 시기에 들어와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靺婁부와 사해부를 직접 통솔하였으므로, 왕 이외에 별도의 인물을 선정하여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맡기는 일은 없어졌다.

마립간 시기의 2부병제는 김씨 왕족의 배타적 무력 독점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김씨 왕족 내에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다. 마립간과 갈문왕이 대립할 때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2부병제는 중고기에 들어와 일원적 지휘체계로 재편됐다. 이것은 법흥왕 3년의 兵部令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흥왕은 마립간과 갈문왕이 휘부와 사훼부를 공동 관리하는 2부병제를 재편하여 국왕이 2부병 모두를 統帥하는 大王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로써 눌지마립간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개편한 2부병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부병제가 이후 신라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창녕비와 남산신성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고기에 들어와서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2부병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09. 9. 2, 심사수정일 : 2009. 10. 8, 게재확정일 : 2009. 11. 17)

주제어 : 진한 군제, 예적 질서, 신라 상고기 군제, 6부병, 2부병, 내병(중앙군), 외병(지방군), 휘부, 사훼부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System of Old *Silla* Dynasty

Kim, Jong-soo

The *Silla* was founded in the course of collapsing system of *Li*(禮) in the *Jinhan* alliance. In other words, while the solidarity of the *Jinhan* alliance was broken down as the productivity increased, *Silla* regime was established. The establishment of *Silla* included 6 counties around *Jinhan* area in a alliance form. Therefore,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is period was operated as the Military System of 6 *Bu* consisting of the residents from the 6 counties.

As *Silla* conquered the countries of the *Jinhan* alliance, the military power increased. In the early time, the Military System of 6 *Bu* consisted of approximately 1,000 soldiers and the military power increased as the war of conquest actively proceeded. During *Isageum Adala* Period, nearly 28,000 soldiers were called out for the war. This increase in military power is estimated to be due to the soldiers called out from the conquered countries. Thus, the military formation was divided into inner soldiers and outer soldiers. The inner soldiers are the central army force referring to the soldiers in 6 *Bu* and the outer soldiers are the army from the conquered countries (later belonged to *Gun*) referring to the local army force.

The military formation during *Maripgan* was operated as 2 *Bu* system. The period when the early 6 *Bu* military system was remodified into 2 *Bu* system is estimated to be the *Maripgan Nulgi* Period. *Maripgan Nulgi* became the king after killing *Isageum Silseong* dignified by the soldiers of 6

Bu. After *Maripgan Nulgi* became the king, it seems he disorganized 6 *Bu* military system and remodified it into 2 *Bu* system. After this, *Maripgan Nulgi* established a dualistic military system in which the soldiers of *Hewpu*(喙部) are commanded by *Maripgan* and the soldiers of *Sahwepu*(沙喙部) by King *Galmun*.

Although the 2 *Bu* system in *Maripgan* Period lent the exclusive monopolization of military power to the royal family *Kim*, it might induce the conflict among the royal family *Kim*. Thus, the 2 *Bu* military system was remodified into a unitary commander system in *Junggo* Period.

Key Words : *Jinhan* Military System, System of *Li*(禮), Old *Silla* Military System, 6-*Bu* soldiers, 2-*Bu* soldiers, The Central Army, The Local Army, *Hwepu*, *Sahwepu*